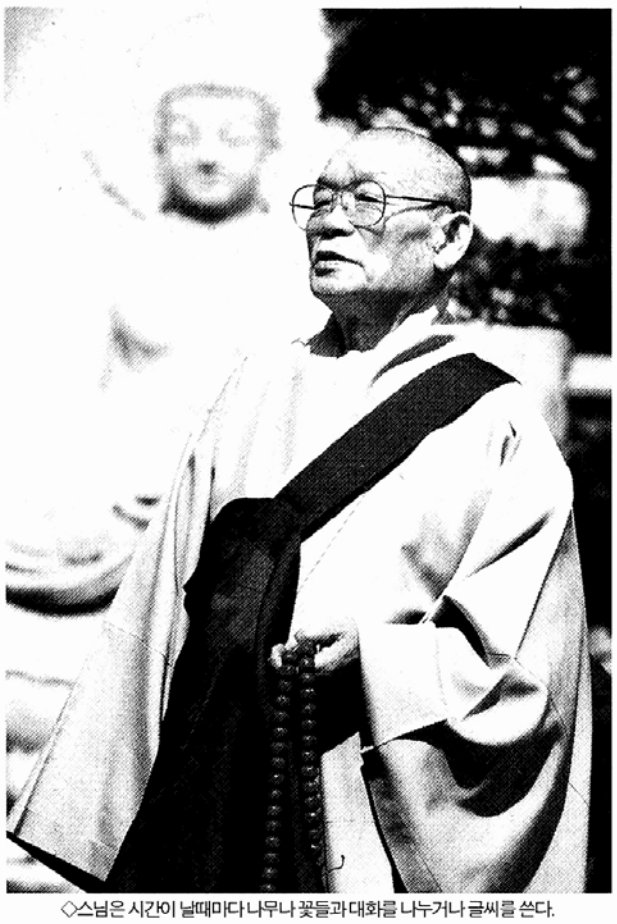
양심껏 사는것 진정한 자유의 길



◇스님은 시간이 날때마다 나무나 꽃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글씨를 쓴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아까 선이 우선인지 교가 우선이지를 물으셨지. 본래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교입니다. 본래 자리가 하나인데,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겠습니까. 선에서 말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문자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말들이 진심(眞心)과 다르지 않으니, 어찌 우위를 논하겠느냐 말입니다."

선지식들은 늘 일상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자연 그대로, 사는 그대로에서 묘법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본래 자리도 분명 그 안에 있을 법한데, 도무지 찾기가 힘들다. 서당 개 삼년에 비유해 절집 3년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이다. 찾자고 들면 과연 찾아지기는 하는 것인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내 말과 행동,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화두를 들어봐야 소용없는 짓이지.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곧 본래 마음인줄 모르니, 본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은 끌도 한계도 없는 만법의 근원이요, 묘법의 원리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初心유지 가장 중요

화산스님과 은사이신 한암스님과의 인연이 궁금했다. 화산스님은 먼저 한암스님과 나눴던 선문답을 소개해 주셨다.

"너의 성품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건만, 스님께 이거다 바칠 것 없습니다."

"자성을 알면 바야흐로 생사를 벗는데, 눈 감고 죽을 때는 어떻게 벗느냐."

"본래 입은 것이 없는데 벗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길 네가 가거라."

스승을 향한 제자의 마음이 어찌 애틋하지 않으랴마는 화산스님의 한암스님을 향한 마음은 남달랐다.

"은사스님은 아주 근면하고 청렴결백한 분이셨습니다. 계행을 잘 지키고 검소한 생활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셨지요. 특히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심 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야만 체면이 서고, 자기 이름을 내야만 만족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탐욕만이 가득할 뿐 하심자리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은 다른 사람이 편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편해야 내가 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자기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화산스님의 행장 가운데는 독특한 것이 있다. 통도사 강주를 지내다가 해방이 되자 서울로 올라와서 '불교청년단'이라는 조직에 가입해 불교청년운동에 나섰다. 불교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고 한다.

"스님, 불교청년운동을 하시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이지. 거울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춥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늘 변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물에 비치는 것과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다르듯이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어찌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두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진짜 자기는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 그것은 곧 진실을 본다는 가르침이었다.

"참은 거짓으로 가릴 수 없고,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참이 될 수 없지. 사람들은 생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바로 안다면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말과 행동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니 거울에 비친 자기를 진짜 자기로 아는 것이지."

스님은 소나무와 꽃을 유난히 좋아하신다. 꽃에는 향기가 있어 좋고, 소나무는 푸르러서 좋다고 하신다. 스님이 계신 보광원에는 어른 키 두 배쯤 되는 소나무 20여 그루가 그리 넓지 않은 마당을 큰 숲으로 만들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다른 사찰로 법문을 다니실 때는 빼놓고는 나무가 도반이자 대중이다.

"송의죽정(松意竹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근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양심껏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사실 나는 출가하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와 명예를 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도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을 택한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변함없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지요."

> 소나무·대나무는 항상 변함없어 사람의 근본도 이와 같아야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것을 청했다.

"팔만대장경 속에는 철학과 과학 예술과 문학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경전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래 마음을 모르고는 부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찾지 못한 부처,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찾지 못한 것을 남은 세월동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무렵, 화산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를 때렸다.

"부처라 하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록가 라마 스님



최근 티베트의 링 린포체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전생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다가 금생에 환생하였다는 것을 그들의 전통에 의해 증명받은 분이다. 그의 방문은 불교계는 물론 각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티베트의 록가(Loggha) 라마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는 일곱 살이 되던 해 부모를 따라 달라이 라마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해에 출가, 엄격한 교육을 받고 라마가 되었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대만에 와서 티베트 불교를 전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다.

유학생활을 하던 나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했지만, 내가 본 그들의 생활환경은 너무나 처참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아니었고, 세면장이나 주방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다. 침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새우잠을 자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열악한 환경을 조금도 불편해



하지 않았다. 언제나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조국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겐 오히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유로움이 충만했다. 누구보다 간절했던 그들의 기도와 자연스럽게 넘쳐흘렀던 자비심 어린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한다.

록가 라마는 유난히 겸손하고 친절했다. 그들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 스님들을 만날 때에도 연장자에겐 예절 바르고 아랫사람에겐 자상했다. 입으로는 틈이 있을 때마다 만트라를 외웠고, 교리에 대해 토론할 때는 막히는 바가 없었다. 삼보에 대한 신심도 지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잔잔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수행인의 기상을 지녔던 스님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저러한 기품이 나올까 생각하곤 했다.

어느 해 겨울, 록가 라마와 나는 그의 도반인 잠양(Jamyang) 라마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비롯해 불국사, 법주사 등을 방문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해인사에 갈 때는 눈덮인 가야산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까지 덩달아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다. 아마 어릴 때 살았던 히말라야를 회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행으로 인해 피로했지만, 그들은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지니고 다니는 패엽(貝葉)경전을 독송했다. 일곱 살 때 수계하면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경전을 삼십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오고 있다고 했다.

잠자리를 준비한 뒤 요 위에서 머리맡의 승대(僧袋 : 스님들이 사용하는 천으로 된 가방)를 향하여 티베트식으로 길게 엎드리는 오체투지(五體投地) 삼배를 했다. 그리고는 승대에서 경보(經褓 : 경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는 보자기)에 싸인 경전을 풀러 무릎에 얹어놓고 읽어 내려갔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거의 외워버린 듯, 눈을 감은 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 그들의 독경소리는 매끄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독경 소리엔 사람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게 하는 형언하기 어려운 성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독경을 마치고 경전을 경보에 다시 싸서 승대에 넣어 머리맡에 두고 독경하기 전에 한 것처럼 길게 엎드려 삼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독경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삼배를 한 뒤 잠을 자게 되면 어찌 그 잠자리가 맑지 아니하겠는가. 아무리 수행인이라 하여도 잠들고

> 언행 유난히 친절하고 겸손 독경소리 성스러움 배어나

난 뒤에는 몸과 의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삼매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수행자라면 잠이 들고 난 다음까지 맑고 조용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거지가 얼마나 점잖고 거룩하든지 나는 그때 받았던 감동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지니고 있을 정도다.

여행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온 얼마 뒤, 록가 라마는 나에게 연세드신 라마 한 분을 자신의 사숙(師叔)님이라며 소개하며, "노스님께서는 한평생 인도 성지순례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노스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스님은 참 좋겠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를 하니 얼마나 좋은가"하며 한국에 태어난 나를 부러워했다.

"한평생 성지순례를 하셨다면 인도에 몇 차례나 다녀오셨는지요?" 내가 묻자 노스님은 웃으시면서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지"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하자 록가 라마가 이렇게 부연설명했다.

"노스님께서는 스무 살 때 티베트를 출발하여 인도 전국을 순례하고 몇 해 전 이른 살이 되던 해에 돌아오셨습니다. 인도 한 번 다녀오는 데 오십 년이 걸린 것이지요." 오십 년이면 한평생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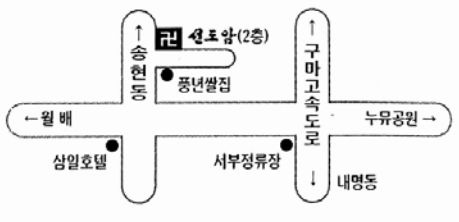
희소식을 드립니다

가정에 버림받고 사회에서 냉대받아 무병(신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등을 위하여 지장도량 선도암 에서는 무상 (無償)으로 특별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안 내

- 천도재는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봉행합니다.
- 접수는 봉행 3일 전에 하시고
- 인원은 10명에 한합니다. 그리고
- 전화상담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30의 3
전화 : 053)623-0236 팩스 : 053)626-2182

선 도 암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탁송으로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卍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춘양목 20자, 24자] 1자 ~ 1자 8치 적송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이종봉 합장 H·P 019)327-0374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